

021223 주일설교 “말씀과 임재” 시편(Psalm) 119:1-8

시편 117편은 성경전체에서 (두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장이고, 시편 119편은 성경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총 176절이나 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119편은 176절 중에서 오직 4절만을 제외하고(84, 90, 122, 132절), 나머지 절들은 모두 ‘말씀,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풍요로움에 익숙해지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움만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지 그리 오래지않아서 삶이 공허해지고 죄가 넘쳐나고, 나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점에,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숭배를 쫓았었고 여호와/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같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고, 심판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해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해서 시편 119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시편 119편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설교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겨 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 119편의 시작을 [에쉐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옛날 성경에서는 행위가 완전하여로 번역됐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타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뜻은 “진실한, 순수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타뎀] 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 [타뎀]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이 ‘소비하다, 다 쓰다,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하다, 끝마치다’ 입니다. ‘적당히 혹은 대중 혹은 나중에’ 와 반대되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진실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적당히 혹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온맘 다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벽이 아니라 진실과 전심이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귀족이며 부자인 존 코드가 당대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방문하였죠. "레오나르도, 내 아내의 초상화 하나 그려 주시요." "언제까지 그리면 됩니까?"

"글쎄, 한 1개월이면 다 되겠습니까?" "...?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6개월쯤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됩니다."

"그럼, 한 1년 정도로 합시다." "선생님, 기간은 저에게 맡겨 주세요."

이렇게 다빈치는 그 그림을 4년이나 걸쳐서 그렸는데, 아직도 미완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55,77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모나리자>, “Mona” 는 한국어로 유부녀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어 경칭이고, “Lisa” 는 이름이죠. 즉 한국어로 하면 “리자 여사” 라는 뜻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토록 장인의 정성과 땀이 배어서 빛나는 예술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최선의 것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2.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말씀으로 부족해서 2절에서도 또 설명하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 다해 보는 것, 주님께 정말 집중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7절에서는 정직한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직한이라는 말은 원어성경에서 [요쉐르]인데 그 뜻이 “곧은, 평탄한, (비똥어지지 않은/복잡하지 않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7절에서는 복된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비똥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똥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게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몬타나주 빌링을 지나가다가 잠깐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맨 앞에까지 나와서 듣다가, 호주머니를 한참 뒤지더니, 10센트 짜리 동전하나를 찾아 들고 나와서 대통령에게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하다가 정성스럽게 바치는 소년의 동전을 받아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갑을 열어봤더니 지갑 속 작은 칸에 종이에 쌓인 10센트 동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5년 전 빌링에서 소년의 선물인 것이 생각났습니다. 대통령은 그 어린이의 선물을 단순히 10센트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그 어린이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며 몸에 언제나 지니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은 그 작은 선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한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드리는 헌신/말

씀에 대한 순종은 눈꼽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양인의 복의 개념은 한자를 풀이하면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복 복(福)자를 보니 옷 의(衣), 한 일(一), 입 구(口), 밭 전(田)이 합친 것입니다. 이는 ‘옷 잘 입고 등따시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옛날 나이가 지긋한 어떤 부인이 마부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세 사람의 지원자가 나타나 그 부인은 그들 각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마차를 몰고 낭떠러지 바로 가장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응시자는 ‘예, 가장자리로부터 1인치 이내까지 몰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사람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위험한 곳이면 언제나 되도록 피해서 달렸기 때문이죠.’ 결국 세번째 사람이 채용될 수 있었다고 해요.

시편은 자신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리까지 갈수 있을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소성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 대로, 내 시나리오 대로 일이 풀리고 진행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말씀 위에 더욱 견고해지는 것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주 안에서 소성케 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54.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노래를 어느 때 부르세요? 울적할 때? 아니면, 기분 좋을 때? 운동 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건, 낯선 땅에 있다는 것이고, 외롭고 두려움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노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일반적으로 밤이 상징하는 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두려운 상황이에요. 도무지 돌파구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낮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 밤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24,50,56,127. 오늘 시편 119편 기자처럼 자기 집, 돈, 명예, 사업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 것이 자기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유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도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 돈, 명예, 사업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고백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자는 곧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먼 곳에 나가면 잘 해야지! 나중에는 잘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님의 빛되신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 나가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